

## “평등법안 철폐 위해 미주 한인교회 연합해야”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은 평등법안 폐지를 위해 미주 한인교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기독일보

남가주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발족된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대표 한기홍 목사)는 친동성애 법안인 평등법(H.R.5. "Equality Act")의 해악을 설명하기 위한 세미나를 지난 26일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했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TVNEXT(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대표 김태오 목

사, 김사라 사모는 “평등법안은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들의 특혜를 확대하는 정책들로 반생명, 반신앙, 반가족 규정을 의무화하게 된다”며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나서 반드시 상원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사라 사모는 “평등법안은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 및

성도착증이 있는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사상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 역차별 법안”이라며 “기독교인들에게 ‘혐오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오 목사는 “평등법이 실행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무

신앙의 자유 훼손하고 반생명, 반신앙, 반가족 규정 의무화 목회자와 평신도 동성애에 죄라고 표현할 경우 처벌 받아 미주 한인교회에 평등법 반대 서명 운동 참여 요청

방비적 동성애에 노출되며,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고, 성전환 수술을 비롯해 낙태 수술 등도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평등법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것보다 더 큰 혼란과 도덕적 타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개탄했다. 김 목사는 이어 “평등법안이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교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성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부 지원이 중단 될 수 있다”며 “평등법안 폐지를 위해 모든 미주 한인교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홍 목사는 “평등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인교계와 한인성

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평등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이것이 악법임을 미주 한인교계와 성도들이 먼저 인식해야 하고,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는 미주 전역의 한인교회협의회와 연합해 평등법 반대 서명을 전개하고 미주 다민족 교회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며 반대 운동과 온라인 기도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평등법안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에 동참을 원할 경우 웹사이트 <https://p2a.co/BN6BJTc> 접속해 이름과 주소를 적은 후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역 상원들에게 평등법 반대 의사가 전달 된다. 평등법안은 성적지향이나 성적체성에 근거해 고용 등에 있어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 미 보건복지부 차관보에 어린이 성전환 찬성 트랜스젠더 임명

미국 상원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인 레이첼 러비안 박사를 보건복지부 차관보로 인준하자 보수 단체들이 이를 비난했다고 25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 고위직에 성전환자를 최초로 지명한 대통령이 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펜실베이니아 보건부 장관을 재직했던 러비안 박사의 인준안은 지난 24일 상원에서 52대 48로 가결됐다. 표결 전 발언에서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러비안 박사 인준

은 성전환자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APP'(American Principles Project)와 같은 많은 사회 보수 단체들은 러비안 박사의 인준을 비난하면서 이러한 임명은 민주당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APP 테리 윌링 대표는 러비안의 인준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관 직책은 아동이 성전환 절차를 거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자에 의해 채워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제 어린이 성전환을 지지하는 것으로 기록됐으며 유권자들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amily Policy Alliance' 전략 담당 부대표인 오톨 레바는 “이번 인준은 바이든 행정부가 급진적인 사회 의제를 주도하고 미국 가정 문제에 있어 강한 좌편향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법

무장관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베세라 지명자는 낙태와 종교 자유에 반대하는 극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라며 “러비안 지명자는 어린이들이 성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에



레이첼 러비안 박사 ©wikipedia

합류했다”라고 비판했다. 가족연구위원회 정책·정부 업무 담당 부대표 트레비스 웨버는 성명을 통해 “러비안 박사는 상원에서 인준된 가장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인사”라며 “러비안 박사는 반생명, 반가족 의제에 반대하는 부모와 신앙인을 처벌하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종교 자유에 대한 러비안 박사의 십자군적인 행동은 평등법(Equality Act)이나 ‘모두를 위한 공정성’(Fairness for All)과 같은 법안에 의해 더 악화 될 것이다. 두 법안 모두 보건복지부가 시행에 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1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8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칙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기쁜우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선교 축제 개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협력 선교지 현황과 비전 공유



지난해 기쁜우리교회 창립 3주년 기념 예배 ©기독교일보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교회 창립 4주년을 기념해 4월 15일(목)부터 17일(토)까지 선교 축제(Mission Festival)를 개최한다. 선교 축제는 현장 세미나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멕시코, 몽고, 인도네시아, 무슬림권에서 선교하는 기쁜우리교회 협력 선교사들이 강

사로 나서 영상을 통해 각국의 선교지 현황과 비전을 공유하게 된다. 김경진 목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기간이지만 교회의 본질과 목적은 선교에 있다”며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교회가 선교적 측면에서 다양한 창의적 시도를 통해 현지 선교사님들과 밀접하게 협

력하면서 선교지와 거리를 좁히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쁜우리교회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3월 29일-4월 2일), 성금요일 온라인예배(4월 2일 오후 7시30분), 부활절기념예배 및 성찬식(4월 4일 오전 9시) 등의 일정도 앞두고 있다.

김동욱 기자

# “코로나19로 죽은 학생은 0명, 자살학생은140명”



## 낮은울타리 미주본부 '자녀회복학교' (TEENZ HMMS) 개최 7학년부부터 12학년 자녀 대상, 영어로 진행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에서 6주 과정으로 십대 자녀들을 위한 “자녀회복학교 (TEENZ HMMS)”를 연다. 3월 31일부터 5월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미주동부시간) 6주간 진행된다. 대상은 7학년부부터 12학년부까지이다. 모든 과정은 영어권 사역자의 인도로 영어로 진행된다. 자녀회복학교(틴즈홈스)는 예배, 영화와 함께하는 영상강의, 나눔 및 기도의 시간으로 구성된다. 특별히 예배와 기도 훈련, 자신의 감정과 문제를 기도로 올려드리는 훈련, 건강한 감정을 가지도록 돕는 학교다. 자녀회복학교는 낮은울타리가 15년 간 해온 회복사역의 중심 사역으로 부모회복학교(HMMS)의 자녀버전이다. 특별히 낮은울타리 키즈사역, 틴즈사역은 교회 학교나, 교육부 담당사역자가 없

는 교회의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조희창 목사는 “지난해 한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학생은 0, 자살학생은 140명이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 블루 가운데 다음세대의 자살이 늘어났는데 너무도 안타깝다”며 “지역교회들과 함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다음세대들을 세워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자녀회복학교의 등록비는60달러다. 등록비는 벤모나 젤러 페이팔로 입금할 수 있다. (Venmo - wooltarius Zelle - wooltarius@gmail.com PayPal - paypal.me/wooltari). 등록은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https://forms.gle/6ZoCGUzujzwQTiQK8> 문의) 낮은울타리 미주본부 646-300-4790, <http://www.wooltarius.org>



©pixabay

# 주님세운교회 ‘평등법 상원 통과 반대 가두 서명 운동’ 전개



주님세운교회 당회원과 남,여 선교회원 33명은 사우스베이지역 3곳의 한인마트에서 평등법안 반대 가두 서명 운동을 펼쳤다.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는 지난 28일 토렌스 한남체인과 S마트, H마트 등지에서 평등법 상원 통과 반대 가두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주님 세운교회는 이날 111명

의 서명을 받았고, 300여 명에게 평등법의 해악을 설명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반대 서명을 독려했다. 박성규 목사는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아시

안 인종 혐오라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도 미국의 거북성을 지켜야 한다”며 “끊임없는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힐 줄 믿는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비영리단체등록 ■특허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 OC 부활절 연합 예배

예수 부활하셨네!

- 일시 : 2021년 4월 4일(주일) 오전 5시 30분~7시
- 장소 : 은혜한인교회
- 주최 : OC기독교교회협의회
- 문의 : 박상목 목사 (회장:714-612-5958)  
추석근 목사 (총무:714-213-9627)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인원 제한이 있사오니 고령이나 질병이 있으신 분은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 미주 한인교회 내 아시아인 혐오 대응 논제 확산

### 뉴저지교협 관련 주제로 토론회 주최하는 등 실제 행동들 이어져

한인 4명을 비롯한 8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 미국 곳곳에서 추모집회와 아시아인 혐오에 대한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교회들도 지역 구분 없이 실제로 다가온 아시아인 혐오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정환 목사)는 오는 27일 '아시아인 혐오 범죄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갖는다. 줌(Zoom)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 뉴저지교협은 "미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시아인 혐오 범죄에 대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 혐오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는 사건들이 미주 곳곳에서 연달아 발생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일에는 LA한인타운 인근

에서 산책 후 귀가하던 60대 한인 남성이 흑인 여성으로부터 벽돌로 머리를 맞아 부상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목격자인 딸의 진술에 의하면 한인 남성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누군가가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소리를 쳤고 현관 인터폰을 누를 때 뒷머리를 가격 당했다. 40대인 용의자는 쓰러진 피해자를 한 차례 더 가격했다.

21일에는 LA인근인 다이아몬드바 지역에서 아시아인 혐오범죄 중단을 위한 시위대를 향해 차량이 돌진하는 일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50대인 백인 용의자는 거칠게 운전하며 중국을 비난하는 욕설을 했고 교차로를 건너는 시위대를 향해 차량을 위협하듯 몰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유턴해 한 차례 더 시위대를 위협했다.

뉴욕에서도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뉴욕의 한인타운인 플러싱에서 34세의 아시아인 남성이



뉴저지교협 회장 이정환 목사.

신원미상의 한 남성으로부터 아시아인 혐오 욕설을 들었고, 맨하탄 애스터플레이스에서는 혐오범죄 반대 시위에 참가하던 36세 아시아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 앞서 20일에는 뉴욕 F전철에서 한 백인 남성이 중국계 20대 여성에게 방뇨하는 사건도 있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주말 사이에 뉴욕에 접수된 아시아인 혐오범죄가 5건 이상이다.

한미연합회(KAC), 뉴욕한인회 등 미국 전역의 한인회들은 오는 26

같이 생각한다"면서 "미국에 인종 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에 사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 목사는 "이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아시아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인종차별로 인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처해야 한다"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민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미 주류 사회뿐 아니라 비주류 사회와도 끊임없이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행동이 필요할 때임을 강조했다.

장기적인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범국가적이고 범민족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는 인종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을 제정 및 집행해야 하고, 학교에서도 이웃 화합에 대한 부분을 교육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복음을 기초로 이웃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나라와 학교, 교회와 가정에서 교육이 이뤄진다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원 기자

## PCUSA 정서기, 애틀랜타 총격 사건 성명, "교단은 모든 아시아 증오범죄에 항거할 것"



미국장로교 정서기 허버트 넬슨 목사 ©PCUSA

다"면서 "이것은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며, 특히 아시아인이나 아시아계 모든 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증오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애틀랜타에서 8명이 총기 사건으로 사망했고 그중에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라면서 "여러 아시아계 공동체가 느끼고 있을 고통, 슬픔, 두려움 등의 감정은 실로 헤아릴 길이 없다. 우리는 폭력으로 인해 8명의 생명을 잃은 것을 함께 슬퍼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 넬슨 목사는 "우리는 소중한 이를 잃은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다. 또 우리는 분열과 증오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분열

과 증오 때문에 아시아계 형제자매들이 희생되며, 그들을 향한 폭력적인 말과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 온전히 대하지 못하고 사회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피해를 우리는 탄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넬슨 목사는 "미국장로교는 어떤 형태의 증오에 대해서도 항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위해 나서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에 대해서도 항거한다"면서 "이(혐오범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에 대한 비전에 반하는 것이며 미국장로교의 다양성과 포용성의 기초에도 반한다"고 교단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장로교 로고 ©PCUSA

마지막으로 그는 "이 반아시아 우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정서는 새로운 것은 아니"라면서 "그러므로 모든 장로교인들이 지지 말고 증오와 폭력에 맞서 싸

우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위해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미국장로교(PCUSA) 정서기인 허버트 넬슨 목사가 한인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6명과 백인 2명의 희생자를 낸 애틀랜타 총격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25일 발표하고 아시아계 혐오범죄를 규탄했다.

넬슨 목사는 성명에서 "미국장로교는 우리의 아시아계 형제자매와 함께하며, 아시아계 혐오에 반대한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책의 추천자들:

- 오대현목사(애수전도단), 주선교구(장신대 영예교수)
- 이영희교수(에스더교회), 송정영목사(복음전도 공동대표),
- 권준목사(주빌리교회), 신정민목사(복음전도 대표이다),
- 유관지목사(동일교회),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록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건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율법이다.

\* 체크오더양: GBMW 모든 기부금은 세무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달려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남가주의 모든 교회와 성도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의 권세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인류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고난 이후에 온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라고 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과 고난을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인내로 극복 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을 맞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 남가주 교협 주최 부활절 연합 예배

- 일시: 4월 4일(부활주일) 오전 6시
- 장소: 주은혜감사교회 (2010 W. 8th St. #360 LA, CA 90057)
- 연락처: (310)321-2348(자스민 박/사무국장)

#### 남가주 교협 제 51대 임원

- 회장 조병국 목사
- 부회장 김사라, 김영배, 김창현, 노인수, 백지영, 정요한, 최영봉, 최영하, 홍여길 목사
- 총무 김영배 목사
- 회계 오세원 목사
- 사무국장 자스민 박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00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선교지 소식”

인사와 학교소식

다른 어느 때보다 건강의 안부를 더 간절히 바라는 어려운 팬데믹 시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헤로 학생들 및 교수님들과 스텝들과 3가정 한인 선교사 가정 모두가 건강하게 한 학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이 5월 첫 주까지인데 올해는 한 달을 앞당겨서 4월 3일(토) 오전 11시에 조기 방학과 함께 졸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업을 당겨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기도하면서 영적 우애들이 더 깊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개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 영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21회 졸업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조기 방학을 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졸업식도 한 달 앞당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을 위해 신학생들은 일과 수업을 마친 후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회 자체적으로 찬양 준비와 단장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졸업식은 졸업생들께 새로운 묵화와 사역의 세계로 나가는 대망의 통로가 되며 재학생들께 하나님을 심어주시는 비전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치아파스주의 개척교회 지원 건축 진행

현재 우리 신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개척교회 3곳의 예배당 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사신의 교회는 치아파스주 정글 안에 사는 흙언어를 구사하는 원주민들로 졸업생 힐베르도 목사님이 개척하여 교인이 50명이 넘으면서 건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 정글에 있으며 원주민들의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소원이어서 한국대촌교회에서 지원했습니다. 현재 20x10(미터) 크기의 함석지붕으로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은혜중에 잘 마쳐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에 대한 감사의 날 축제

학생회에서 자치적으로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헌신을 감사하면서 학생들은 감사의 편지 읽기와 저녁 식사 그리고 선물까지 준비하여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교사 3가정은 학생들의 감사를 받은 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의 크신 은혜라” 찬송으로 화답하였습니다.

2021년도 졸업생 논문 최종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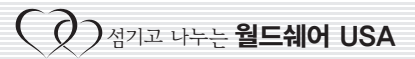
지난 3월 22일에는 졸업생들의 논문 최종 심사가 있었습니다. 졸업생 13명 중 교회음악과 3명은 졸업연주회로 심사를 받을 예정이고 10명의 졸업생이 6명의 논문 지도교수(2분은 좀 동영상)로)의 심사를 받으면서 5분 논문 내용 요약발표와 교수와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엄중하면서도 매우 은혜로운 논문 심사를 받았습니다. 논문 최우수상은 대학에서 수의학학을 전공하고 우리 신학교에 와서 M.Div. 과정을 마치는 Lopez Alfredo 학생이 확정되었습니다. 알프레도 학생의 아버지 아르만도 목사님도 우리 신학교 대학원 출신입니다.

사순절 중 금요 특별기도회

이원준 전도사(그레이스 림 사모) 부부가 인도하는 금요기도회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기도 제목들을 두고 합심하여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⑪ “비시디아”

바울의 선교팀은 바보(Paphos)에서 배를 타고 버가(Perga)로 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 머물지 않고 서둘러 위험하고 어려운 타우리스(Taurus)산맥의 산길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버가(Perga)’라는 도시의 규모와 성격을 생각할 때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나쳤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에게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급히 달려 가야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과 함께 바울의 선교 사역에 중요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장군 중 한 사람인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가 셀레우코스 제국을 세웠습니다. 셀레우코스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 60여개의 도시를 재건하거나 새롭게 세웠습니다. 이 60여개 도시들은 군사적으로 요새화(Fortify)하고 문화적으로 헬라화(Hellenize)했습니다. 이 60여개 도시 중 16개 도시들 이름을 아버지 안티오코스를 따라 안디옥이라 명명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안디옥은 아주 흔한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고대 역사학자 조세푸스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셀레우코스 왕조의 6대왕인 안티오코스 6세가 바벨론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대거 이동시켰습니다. 안티오코스 6세는 유대인들이 셀레우코스 왕조를 충성스럽게 지지해 줄 것으로 믿고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2천 가정을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강제 이주 정책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B.C. 25년경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다시 정비되면서 로마 직할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지역 첫 로마 직할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직할 도시가 된다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직할 도시 첫 번째 특징은 로마시민과 똑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로마의 예비역 군인들이 거주하는

군인 정착지가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로마 황제 숭배 종교가 성행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런 특징을 고스란히 가졌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하에서 한층 더 발전한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바울 당시 비시디아 지방의 수도였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도 대거 거주하였던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 선교센터로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처음 나타냅니다(행13:48).

현재 터키 알바츠로 불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서 아시아 지역역 복음이 퍼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회당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시작으로 바울이 1차 선교여행으로 거쳐 간 데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회람문서였던 갈라디아서가 보내졌던 곳도 이런 지역들이라고 봅니다.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한 궁금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 많은 유적들을 발굴했습니다. 영국의 성서 고고학자인 윌리엄 램지(William Ramsay)는 사도행전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터키지역을 조사하다가 사도행전의 진실성을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윌리엄 램지는 누가 쓴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주장하는 큰 학자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램지 박사는 50년간 성서지리의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역사적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로마시대의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발굴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위험한 산길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왜 갔을까요? 고고학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구브로 총독 서지오 바울의 고향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서지오 바울 이름이 각 지역에서 발굴된 비석들에 있었습니다. 구브로 비문은 그가 총독임을 밝혔고, 로마 비문은 그가 총독을 마치고 로마 관직(Curator)에 취임한 것을 알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비문은 그의 고향과 그의 가족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권세 있는 지역 유지임을 밝힙니다.

베넬 신학교 성서고고학 교수였던 칼 라스무센(Carl Rasmussen) 박사는 서기오 바울 때문에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성서고고학자인 팬트(Fant), 레드쉬(Reddish) 두 교수는 바울 때문에 믿게 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선교팀에게 자기 고향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서기오 바울이 이 고향 가족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선교팀이 전달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수의 유대인들과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사는 다인종 사회였습니다. 로마 황실의 관심과 배려로 특별한 지위를 누리던 비시디아 안디옥은 선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 데베 그리고 루스드라는 바울의 고난을 대표(딤후 3:11)합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 다수 분포했던 유대인들 영향으로 율법주의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런 경향을 지적하고 가르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래저래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행전과 바울 선교에 중요한 도시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 아틀란타 지역에 40개 교회 개척한 페리미터 교회

## 교회의 부흥, 교회성장론과 목회성공에의 재인식(6)



조지아주 페리미터 교회 ©perimeter.org

###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미국 조지아주 존스 크릭 시에 소재한 "페리미터" 교회 (Perimeter Church)를 1977년 여름에 개척할 때에, 랜디 포프는 "리폼드 신학대학원"을 막 졸업한 직후였다. 그는 42년을 목회한 후, 2019년에 담임목사직에서 퇴직했다. 20명이 시작한 교회는 5천여 명으로 성장했고, 애틀란타 시 주변에 40개 교회를 개척 분립시켰다.

그는 초대 설립 목회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이제 새로운 지도력으로 더 든든히 서 나가야 한다고 하여 40대의 젊은 목회자를 담임목사로 세웠다. 지금은 가르치는 일과 제자훈련 단체의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개척 첫 주일 날의 기가막힌 간증은 필자가 직접 포프로부터 들었고, 그의 교회 책자에도 소개되어 있다.

포프가 아틀란타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러 내려갔을 때에, 미국

장로교회 (P.C.A.) 국내 전도부에서 매달 아파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날이 금요일이었다고 한다. 랜디는 자신이 이사할 아파트의 새 주소지로 교단 개척지원 본부에서 수표를 보냈으리라 기대하였는데, 아직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었다.

그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관리사무소에서는 예약된 방의 열쇠를 내주면서, 날씨가 무더우니 일단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서 쉬고, 다음 월요일 날까지 보증금을 납부하라고 했다.

그는 주일 날에 주변에서 목회를 잘하는 분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방문을 했다. 주차장에서 교회로 들어가면서, 옛날 알라바마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함께 성경공부를 했던 동창생을 뜻밖에 만났다.

그 친구는 1부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중이었고, 포프는 2부예배에

참석 차 들어가던 중이었다. 친구는 반가운 마음에 함께 다시 교회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예배 중에 그 친구는 마음에 받은 감동으로, "내가 오늘 헌금을 교회에 바치지 못하였는데, 아마도 개척교회를 하는 친구를 도와주라는 것이었나 보다, 설교가 끝나면 네게 줄게"라고 귓속말로 소곤했다.

포프는 일생동안에 그렇게 긴 설교를 처음 들었다고 생각했다. 어서 설교가 끝나야 친구가 돈을 줄 것이 아닌가! 설교가 끝이 난 후, 친구는 수표 하나를 건네주고 자리를 떴다. 정확하게 전달된 금액은 다음 날, 월요일에 아파트 비용으로 갖다주어야 할 금액, 6백 달러였다. 더도 덜도 아닌 6백 달러라니!

이것으로 포프는 자신의 개척교회가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운행되고 있음을 확신했다. 기적과 같은 이 체험을 공감하면서, 초기 개척교회 회원들은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다.

포프는 개척 초기부터 소그룹 사역을 중심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소그룹 제자 훈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여러 장소에다가 확장시켰다.

거의 미국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인데, 결국 도시 전체를 복음화하려는 전략적인 방법이었다. 그 결과로 페리미터 교회는 아틀란타 지역 주변에 40개 교회를 개척하여 분립시켰다. 전세계에는 120개 교회를 세웠고, 연합된 사역을 공유하고 있다. 한 사람의 개척 목회자가 42년 동안 열정적으로 교회를 지도해 나온 결과가 이처럼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

지금 페리미터 교회는 2300석의 분당을 1996년에 완공했다. 110에이커의 땅에다가, 2개의 호수를 품고 있는 캠퍼스를 건설했다. 주차공간도 2천 대에 달한다. 교회 외에도 학교,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 육상경기장, 2개의 야구장, 축구장, 야외 소풍 공간을 갖추었다.

필자는 랜디 포프 목사를 여러 차례 만났고, 달라스에서 열린 그의 제자훈련 세미나에도 직접 참석했었다. 참으로 겸손하고 솔직한 목사이다. 넥타이에 정장을 입고, 권위를 자랑하는 분이 아니다.

탁월한 훈련교재를 받아들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더니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어로 그

번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제자훈련 교재의 내용들은 미국의 문화와 생활 속에서 겪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화들로 꾸며져 있었다. 야구와 미식축구에 열광하는 미국인들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C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s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리처드 랜드 박사 “미국 내 총기 난사...사회 중재 기관의 부재 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칼럼니스트이자 남부 복음주의신학교(Southern Evangelical Seminary) 총장인 리처드 랜드(Richard Land) 박사가 미국 내에 만연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26일 “대량 총격 사건: 심각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답변”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최근 애틀랜타와 보울더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애도를 표하며 “미국인으로서 함께 모여 대화할 때”임을 촉구했다.

랜드 박사는 “계속되는 총격 사건은 극도의 사회적 오작동을 상징하는 폭력적인 분화로 미국에서 표면 바로 아래에서 들끓고 있다”며 “총기 규제는 너무나 단순한 대답이며, 마치 잘린 동맥에 반창고를 붙이고 출혈이 멈추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기 사건과 관련, “원인은 여러 가지이며,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괴롭히는 몇 가지 성가신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미국의 사회구조를 붕괴시키는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문화 속의 심각한 병폐로 “아버지의 부재, 인종차별, 도심의 붕괴,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무분별한 폭력 미화, 실패한 정신 건강 시스템, 공통된 인간성보다 차이를 강조하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경찰에 대한 조직적인 무례함과 조롱, 법 체계에 대한 무시와 경멸”등을 지적했다.

총기 규제에 대해 그는 “17세기 이후부터 미국은 비교적 쉽게 총기류를 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대량학살은 있지 않았다”며 60년대는 6건, 70년대에는 13건의 대량 총기 사고가 보고된 반면, 80년대에는 32건, 90년대 42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놀랍도록 빠르게 증가할까? 한 가지 단서는 그 대량 난사범이 거의 항상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라며 “최근 발생한 27건의 대량 총격 사건 중 26건은 가정에서 기능적으로 아버지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2003년 YMCA와, 다



남스 캐롤라이나 샬롯에 소재 서던 에반제리칼 세미나리(Southern Evangelical Seminary) 총장 리처드 랜드 박사

트머스 의과대학, 미국가치연구소가 후원한 ‘위험에 처한 아동 연구회’ 보고서를 인용, 미국의 어린이 5명 중 1명은 “관계 위기(connection crisis)”로 인해 정서적, 생리학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랜드 박사는 “보고서는 또한 청소년기에 있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압도적

받음을 느끼기 위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우리의 도덕적 세계관에 생물학적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 연구는 도덕적, 영적 연결을 위한 인간의 배선(hard-wiring)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계속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 모델은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도덕적 정체성을 심어주는 책임을 등한시하는 사회는 도덕적 혼란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랜드 박사는 “미국 문화에서 사실상 모든 중재 및 사회화 기관(mediating, socializing institutions)의 상대적 붕괴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파괴적, 폭력적인 행동의 병적인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진리와 우리 아이들이 처한 위험을 무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강연속기자

## 종교적인 미국인 42% “한 달에 한 번 이상 현장예배 출석”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전염병이 계속되는 중에도 종교적으로 확인된 미국 성인 중 42%가 지난 달 적어도 한 번 예배를 출석했다고 답했다고 23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종교적 회중의 삶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Life in U.S. Religious Congregations Slowly Edges Back Toward Normal)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연구원들은 지난해에 비해 예배 출석률이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지난 달 적어도 한 번 예배를 출석했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2020년 7월 13%에서 2021년 3월 초에는 17%로 응답률이 약간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응답자는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이전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출석한 경우 종교적 미국인 범주로 분류됐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종교적 미국인 중 42%는 지난 달 적어도 한 번 예배를 출석했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0년 7월에 같은 응답을 한 33%보다 높았다.

기독교 하위 범주에 따르면 복음주의 기독교인 응답자가 지난 달 현장예배를 출석했다고 대답



미국의 한 교회에서 참석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Fellowship Church

한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가톨릭 신자들은 지난 달 34%가 현장예배에 출석했다고 답해 복음주의자 다음으로 가장 큰 기독교 그룹이었다. 그 뒤를 이어 주류 개신교인들이 34%, 흑인 개신교인들이 21%로 답해 그 뒤를 이었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인종별로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비히스패닉 백인 가운데 50%가 지난 달 예배를 출석했다고 보고한 반면 히스패닉계의 34%와 비히스패닉계 흑인의 25%가 같은 대답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일부터 7일까지 응답자 1만2천55 명을 대

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1.5% 포인트다.

이 보고서는 또한 종교적 미국인으로 분류된 사람들 사이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현장예배를 출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적 미국인 중 76%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예배를 출석할 수 있다는 진술에 “매우” 또는 “다소 자신 있다”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보고된 64%에서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20년 7월과 2021년 3월 사이에 “대면예배를 위해 자신의 교회를 폐쇄해야 한다”고 믿는 종교적 미국인의 비율은 28%에서 15%로 감소한 반면, “정상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믿는 교인들은 13%에서 26%로 증가했다.

퓨리서치는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입원과 사망률이 감소하고 예방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종교적 회중의 생활이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그래도 미국 회중의 상황은 평범한 상황과는 거리가 멀고, 기독교인들에게 두 번째 연속으로 매우 이례적인 부활절 시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 마이크 린델 CEO “미국에 다가오는 공산주의” 경고



마이크 린델 CEO ©인스타그램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사업가가 최근 미국에 공산주의가 도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기독교일보 영문판이 25일 보도했다.

미국의 마이필로우(My Pillow)의 마이크 린델 CEO는 뉴욕에 본사를 둔 ‘뉴 탱 다이너스티 텔레비전(NTD)’에 최근 출연,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언론과 빅테크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린델은 2020년 미국 대선을 부정 선거라고 주장한 이유로 22개 소매업체와 그의 모든 SNS계정이 정지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계정이 중단될 걱정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출시와 함께 웹 호스팅 서비스에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승에서 사회자가 미국인들이 ‘캔슬 컬처(Cancel Culture)’로 인해 매일 중국인들이 겪는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자, 린델은 “공산주의가 실제로 (미국에)도래하고 있으며 심지어 여기에 있는 민주당원도 ‘와우’라고 할 것”이라면서 “이것

은 공산주의이고, 사회주의이며, 정부의 통제”라고 답했다. 또 그는 미국 내 혼란과 관련, “미국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맛보고 있다”면서 “부흥이 오기 전에 국가적 차원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린델은 “여기에 악의 머리가 드러났고 악이 출연했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연합할 것”이라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하나님 아래 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린델은 자신이 후원한 기독교 영화 ‘처치 피플(Church People)’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올해 출시된 이 기독교 코미디 영화의 수익금은 약물 남용과 중독자를 돕는 ‘딜렐 회복 네트워크’에 쓰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가 희망을 찾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라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면, 모든 곳에서 사람들의 위대한 연합이 어디에서나 있을 것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기적의 때(time of miracles)에 있다고 믿는다.”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 고난주간 특별 새벽부흥회

## 예수

나를 위하여...

그가 짊어짐은 우리의 허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5)

**OC 교회연합**  
**부활절 새벽예배**  
시간: 4/4(주일) 5:30a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www.gracemi.com](http://www.gracemi.com)  
2021. 3. 29(월)~4.2(금) 새벽 5:30, 4.3(토) 새벽 6:00  
강사: 한기홍 담임목사 |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p><b>한기홍</b> 담임목사</p> <p><b>은혜의 말씀</b></p> <p><b>방송 시간</b></p>	<p>우리방송 AM 1230 JSTV 미국전역 CH 668(Dishnet)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헤럴드</p> <p>San Diego Radio Korea</p> <p>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헤럴드 CTS TV 미국 CH 2092(Directv)</p> <p>KCBS Chicago AM 1590</p> <p>JSTV 미국전역 CH 668</p>	<p>오전 08:30(주일) 오전 08:00(주일) 오후 12:00, 9:00(주일)</p> <p>오후 04:00(월요일)</p> <p>오후 04:30(화요일) 오후 08:00(화요일)</p> <p>오전 10:20(수요일)</p> <p>오전 06:00(목요일)</p>	<p>CTS TV 미국 CH 2092(Directv) Radio Seoul AM 1650 미주복음방송 AM 1190 CTS TV 한국(국) Radio Seoul AM 1650 JSTV 미국전역 CH 668</p> <p><b>그외 인터넷 방송</b> KGMUSA.org(새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 GKCTV SBN(Smart Broad Casting Network) KGBN(미주기독교방송국) SON Ministry(GMAN Radio)</p>
---	--	---	---

**주일예배 안내**  
1부7:30am | 2부9:20am | 3부11:30am | 4부2:00pm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KOREAN CHURCH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www.gracemi.com 은혜기도원: Tel: 951-277-1188  
11985 Indian Truck Trail, Corona, CA 92883



# 미 개신교인 86% “대유행 기간 교회의 대응방식 자랑스러워”



©Diana Polekhina / Unsplash

올해 2월5일부터 18일까지 1,000명의 미국 개신교 신자들이 참여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그들의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준 대처에 긍정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7일 기독교일보 영문판은 라이프웨이 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개신교 교인들의 86%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기간 동안, 자신들의 교회가 대응한 방식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응답했으며, 12%가 “부끄럽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19세 사이의 젊은 청년층이 자신들의 교회가 국가 보건 비상사태에 대처한 방식에 가장 비판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대면 예배의 경우, 교인의 절반 이상(51%)은 올해 1월 이후로 교회 현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팬데믹 선포 이후 현장 예배를 재개한 곳은 개신교 교회 10곳 중 1곳이 안되었다가 3월 말과 4월, 6~9월 사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다시 이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스콧 매킨클이 사는 이번 조사 배경과 관련, “목회자들이 코로나19 동안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대다수의

교회 신자들은 교회의 다양한 대응에 동의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사 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매킨클은 또한 그들이 다니는 교회가 팬데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교인들의 경험이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론 조사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보건 지침에 따라, 실시간 중계(85%), 사전 녹화 영상(76%), 온라인 성경 공부(52%)와 같은 기술지원 접근 방식 외에도, 개방된 공간에서 드리는 야외예배(39%), 드라이브인 예배(30%)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야외 예배를 드린 교회는 교인의 절반 이상(58%)이 참여했으며, 드라이브인 예배도 56%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의 연령대는 주로 18~19세의 젊은 층이었다. 반면 50세 이상의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를 더 선호했다.

이에 대해 매킨클은 “교인 대부분이 ‘항상 행복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다양한 접근 방식과 기술이 동원되면서 대다수 교인들이 어느 순간 자신들의 교회가 제공하는 것에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강연숙 기자

# “예수님이 코로나19 백신” 존 해기 목사, 백신 접종



존 해기 목사. ©Hagee Ministries 제공

## “기도의 능력과 현대 의학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미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코너스톤교회를 이끌고 있는 존 해기 목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을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4일 보도했다. 해기 목사는 앞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했을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코로나19 백신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의 사역 팀은 해기 목사가 예수님과 의학을 모두 믿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며, 해기 목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을 밝혔다.

아리 모겐스텐 헤이지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해기 목사가 백신을 맞고 있다. 그는 기도의 능력과 현대 의학 모두를 믿는다. 이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해기 목사는 작년 11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회복되기 전 약 보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해기 목사는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증언하기 위해 이 의사에 앉아 있다. 15일간 이중 폐렴으로 병원에서 지냈다. 아직도 숨을 헐떡이며 집에

있어야 하는데,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다. 저는 모든 질병, 특히 이 나라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위로 숨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백신을 갖고 있다. 그 백신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의인을 고쳐 주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신속히 회복시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이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ABC뉴스 의학 칼럼니스트 제이 바트 박사는 “이러한 발언이 모든 지역사회가 바이러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백신 반대 단체들과 종교 단체들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백신에 대한 공정한 접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색이 분명한 단체에서 그러하다. 우리의 선택은 건강, 안전, 코로나19가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 교회혁신교회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말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일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공복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2세대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지원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gen 코너)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1블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리셋에델린예배 (소매예배)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 신, 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삶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믿어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4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영아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개혁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요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일도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주조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4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요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개혁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찬양찬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개혁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EM예배 (1부)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한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박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예배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교육부 후원예배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교육부 후원예배  
 금요일예배 오전 7:30 교육부 후원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6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종교개혁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오후 7:30)  
 1814 Hiram St., Northridge, CA 91326 EM: 오후 1:30  
 T. (818)935-5887**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종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려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년부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년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개혁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석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개혁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년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이동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 (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성령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강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웅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보리스 존슨 “팬데믹 기간 지역사회 섬긴 기독교인에 감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기독교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영상 캡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역사회를 섬겨준 기독교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25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2년 연속 온라인으로 개최된 ‘스프링 하베스트 홈(Spring Harvest Home) 행사에 참석 예정인 존슨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코로나19로 사망한 12만 6천명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국가 성찰의 날’이 지난 며칠 뒤에 나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영국 전역의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에 큰 감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교단의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은 서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 사회,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교회가 폐쇄되었을 당시, 이에 적응해준 기독교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여러 달 동안 여러분은 평소처럼 예배와 기도를 위해 함께 모일 수 없었다”면서 “나는 그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불평없이 온라인 예배와 모임에 적응했다”라고 말했다.

올해 스프링 하베스트 홈 행사에는 존

슨 총리 뿐만 아니라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경과 자유민주당 대표 에드 데이비(Ed Davey) 경이 부활절 영상 메시지를 각각 녹음했다.

총리와 당 지도자의 메시지는 부활절 다음 날 공유될 예정이다.

이 행사를 기획한 에센셜 크리스천(Essential Christian) CEO 필 루스 대표는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는 교회가 그간 수행한 일과 희생에 대해 총리에게 인정받은 중요한 순간”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주변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땅 위와 아래의 교회는 국가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했다”라고 했다.

한편, 정치 지도자들의 메시지에 이어 신자들이 신앙의 일부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루스 대표는 “이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일해 파괴적인 전염병의 여파로 무너진 지역 사회를 복원, 갱신, 재건하면서 국가 지도자를 지원할 때”라며 “스프링 하베스트에서는 교회가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자원을 제공한다”라고 했다.

올해 스프링 하베스트 홈 행사는 4월 4일 부활절 주일 저녁부터 4월 8일 목요일까지 진행된다.

강혜진 기자

**딸 성전환 반대한 캐나다 학부모, 법정 모욕죄로 수감**

캐나다에서 자신의 딸이 실용적인 성전환의 일환으로 성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을 장기간 반대해 온 아버지가 법정 모욕죄로 수감됐다.

1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로버트 후글랜드는 이날 초 판사가 그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영장을 발부한 후 지난 16일 체포됐다. 그는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 밴쿠버 대법원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경찰에 구금될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CP와의 인터뷰에서 “후글랜드의 변호인은 ‘그에 대한 체포 영장은 효력이 없으며, 구금은 불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석방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후글랜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서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성별 확인’ 의료 서비스를 노골적으로 반대해 왔다. 반면 캐나다 의료 및 법률 시스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의 전 부인은 자녀의 성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CP는 “후글랜드는 딸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SOGI 123’으로 불리는 성 정체성 교육 자료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그의 딸은 몇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모두 성 공포증 때문이었다. 딸이 초등학교 7학년 때 학교 상담사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아이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모습이 졸업 앨범에 담겼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교 상담가는 딸에게 테스트스테론 복용을 권했고, 그녀를 인근 병원에 있는 내분비내과로 데려갔다. 후글랜드가 법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판사는 그의 동의는 관련이 없으며, 만약 딸을 남성으로 확정하지 않으면 ‘가정폭력’이라는 형사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후글랜드는 2020년 2월 진행된 더 페더럴리스트(Federalist)와의 인터뷰에서 “완벽하게 건강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변질되고 파괴됐다. 이는 국가가 지원하는 아동학대”라며 “이제 딸은 건강한 신체의 소녀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그 아이는 저음의 목소리

를 갖게 될 것이고, 얼굴의 털 때문에 영원히 면도를 해야 할 것이다.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후글랜드는 “가끔씩 다른 학부모들에게 뛰어들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고 싶다”며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나의 경우, 딸의 삶이 밖에서 망가졌다”고 했다.

후글랜드의 변호인은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형사 처벌에 대한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법원에 청원한 상태다.

공개 법정 및 기록 모두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법무장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약 10일 전 후글랜드의 변호사에게 그에 대한 체포 및 형사 모욕죄와 관련된 재판 과정을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문서에 ‘CD’로 언급된 후글랜드는 지방 정부가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을 예상한 가운데, 자신을 체포해 구금하려는 것은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 특히 1982년 헌법에 기재된 법적 권리에 대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은 한 사람이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금될 때, “이유를 즉시 알 수 있고, 지체 없이 변호사를 유지·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인신 보호 명령에 따라 구금의 타당성을 결정하여, 구금이 합법적이지 않을 경우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범죄와 처벌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부당한 지연 없이 통보를 받고 합리적인 시간 내로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후글랜드의 변호사는 “그의 헌장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적인 결정은 매우 독단적인 정의이며, 법 집행에 있어 재판을 할 의사가 없다고 알려지지도 않고 대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법정을 오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식으로 발부된 영장은 무효이며, 무효 영장에 따른 구속은 허위 구속”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학년도 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2021년 3월 22일개강

###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2021 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30 PM - 9:30 PM	초대교회사	Daniel Min
Tue	7:30 PM - 9:30 PM	데살로니가후서,고린도전서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영성 신학	Elijah Kim
Thu	7:30 PM - 9:30 PM	선교신학2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기독교상담학	Jong Y Kim
Sat	7:30 PM - 9:30 PM	시편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 예수님의 “끝까지” 의 사랑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키우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신 사랑 속에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미리 용서하시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씻음은 용서입니다. 씻음은 정결케 합니다. 그릇이 더러워지면 그릇이 스스로 자신을 깨끗케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그릇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그릇과 같은 우리가 더러워질 때 우리 스스로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없습니다. 더러워진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무릎 꿇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고전 13:4, 7).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하는 것만큼 오래 참고, 사랑하는 것만큼 견뎌냅니다. 엄마는 자녀를 잉태하면 오래 참고, 끝까지 견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뎡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중에 견디기 힘든 순간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칼로 종의 오른 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낮게 해 주셨습니다(눅 22:51).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은 “끝까지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막 15:30, 32).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지 않으시고 내려오셨다면 인류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까닭에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 죄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히 4:16, 10:19-20).

셋째,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역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낫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벧 2:8하).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한 번 두 번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곧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참으실 때 이를 악물고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참으셨습니다. 소망 중에 참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참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첫 열매되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됩니다(고전 15:20). 그런 까닭에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하는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부활의 즐거움을 바라보는 기쁨의 주간, 소망의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잊어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부모가 됩시다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에 성경을 필사하여 쓰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종 장로님, 권사님 댁을 가보면 신발장 위에나 응접실 탁자 위에, 성경을 필사한 노트들이 자랑스럽게 놓여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하늘나라 가시고 자손들이 이사를 다니면서 그 귀한 필사노트들은 대부분 다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한 필사노트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필사한 것이었습니다. 그 옛날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성경을 쓸 때는 역지로 썼겠지만, 그 노트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버려지지 않고 가정에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려면 신앙훈련은 항상 자녀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예배 때 살펴 본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으면서 레갑의 이야기가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모범으로 증거 한 예가 바로 레갑 자손입니다. (렘35:16)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다”

레갑은 원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이었는데, 유다지파에 흡수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열왕기하10장에서 아합과 그의 아들 야하시야의 큰 범죄 때문에 예후가 일어나 그 집안을 멸할 때 진실한 사람으로 레갑자손 요나답(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아합 자손을 진멸했는데도 예후가 여전히 신앙 회복에는 관심이 없음을 알고 광야로 사라져서 은둔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의 찬송을 듣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던 들판의 목자들이 레갑 자손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럼 왜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 가면서도 레갑 자손을 모델로 삼았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느냐 하면,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약 250년이 지난 그 때도 그대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으로 계산하여 한국 역사와 비교해보면, 1770년경 조선에서 가장 장수하고 오래 재위했던 영조임금 때인데, 그때 한 약속을 지금도 지키는 가문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레갑 자손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2500년 동안 신앙적 결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요즘 조금씩 대면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 만으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심방예배를 드릴 때도 꼭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과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교회의 비전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주간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깊이 새기며 여리고 특별새벽예배를 갖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기독교 신앙핵심을 기념하는 절기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박광철 목사의 영성 개발

## “영성과 섬기는 리더십”



솔트하우스선교회 대표  
박광철 목사

여기서 “묵상”은 일반적인 “명상”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종교나 정신교육 등과 같은 것에서 가르치는 명상은 대체로 “마음을 비우고 무념무상하는 것”이거나 “다른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명상하는 이들은 조용한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만트라(mantram)를 반복한다. 만트라란 산스크리트어로 “마음의 도구”라는 뜻으로서 “마음이나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진실한 말, 음절 또는 시귀같은 것”을 말한다. 일종의 주문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그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는 작업이다. 마치 소가 여물을 하루 종일 되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한다.

주의 말씀을 보다 효과적으로 묵상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몇 가지를 제안한다.

- 조용한 장소와 시간과 마음의 준비를 한다. 소란한 환경이나 어수선한 분위기는 묵상을 방해할 수 있다.

읽은 말씀을 깊이 되새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그 뜻을 음미하며 생각한다.

- 삶에 적용할 것을 깊이 생각한다. 성경은 읽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의 삶에 적용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 개인적인 영혼의 양식과 힘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준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거대한 과업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떠

나지 말고 그대로 준행하라고 하셨다(수 1:8).

- 깨닫고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긴다. 주의 교훈을 되새기고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한다.

- 성경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박히고 새겨지도록 반복해서 외우고 늘 기억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확실한 무기가 된다(골 3:16). 마치 연애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또 때 순간 애인을 생각하는 것과도 같고, 며칠 후에 결혼하는 사람이 그것을 잠시도 잊지 않는 것처럼 때 순간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훈련으로 더 잘 할 수 있다.

#### 금식에 관하여

제자들이 어느 병자를 고치지 못했을 때에 실망한 그들은 예수께 왜 그들이 병을 고칠 수 없었는지 물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기도 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마 17:21, 막 9:29). 즉 기도할 때에도 배가 많이 부르면 기도하기가 힘든 것처럼 금식과 함께 기도도 집중하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금식은 어떻게 할까? 무조건

음식을 끊는다고 하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기도 안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집중하는가의 문제이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일 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는데 그것을 칭찬하기보다는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더 많으셨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 6:16).

위선적으로 금식하는 자들은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은근히 알리기 위해서 씻지 않거나 외모를 다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가 경건하게 금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존경하거나 박수를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상급은 없다.

과식하면 몸이 나른해지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기 어렵다. 탐식은 우상숭배와 같다(골 3:5). 그러므로 식욕을 통제하는 것도 영성개발에 많이 유익하다.

하루에 한 두 끼를 생각하거나 며칠 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집중한다. 금

식 기도는 쉬지 않고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골 3:1).

어떤 이들은 음식을 절제하지만 오락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세상 것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경우를 본다.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잠시도 떠나는 것을 불안해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진정한 금식은 음식만 아니라 각종 오락을 끊고 스스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

각종 육체적인 욕구를 절제하는 훈련을 한다. 실제로 육체에 속한 것들은 영에 속한 것과 같음을 일으키는데 무엇을 따라갈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혹시 건강을 끊는 것이 어려우면 스스로 절제하고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는 것도 지혜다. 그러나 일부 타종교에서 이른 바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래 동안 음식을 끊어서 빼만 앙상한 것이 곧 탁월한 영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몸을 씻으면 영성이 떨어져 나간다는 미신같은 생각 때문에 일 년 또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몸을 씻지 않는 것은 결코 영성과 무관한 것이며 건강을 해친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멀티수 주병제작  
 교미로고  
 마그네틱 원형물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시공하면 원가주머니만 돌려드립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향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기도로 성취되는 성역(聖役)

사도행전 13:1-12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1:19-21에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교회들의 모체로 서둘러 세워지게 됩니다. 처음에 세워지는 과정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그 후에 세워지는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의 목적과 틈없는 계획 가운데 서둘러 전도인을 보내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어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주변의 택하신 백성들을 끌어 모아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 소망의 체질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교회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세계 교회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인 신도들은 과거에 헬라 문명권에서 살면서 그들은 세상적 지혜를 바탕으로 머리를 싸여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세상조건의 허망한 기대와 꿈을 스스로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그들의 인생관은 완전히 영성으로 바뀌진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살다보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거리를 달라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금식하는 기도까지 했다는 사실은 교회 역사 이래로 소망적인 모습을 최초로 보여준 것입니다.

흔히 교회들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 전달해도 당회나 제직회에서 이를 두고 알가알부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불손한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고 피라미드형인 계통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루시고 세우셔서 가꾸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교인들 각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할 일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락하시고 맡기시는 일이어야 자기들이 감당해서 하나님 섬기는 보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시험해보시고, 분석해보신 결과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할만하고 그들이 파송되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성령의 능력

으로 채워 쓰실만한 그릇으로의 자격이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선교사로 세우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이들은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성령의 능력인 은사와 영력을 충만히 받아 파송되어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고 복음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했는데, 안수(오비디언)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마...(종략)...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딤후 4:14-16)한 것으로 보아 안수라는 것이 그저 손만 얹었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 채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안수함으로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어 능력을 채워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가리워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옵소서”했고 영적인 선교 사업을 일거리로 주셨더니 다시 그들에게 영력을 충만하게 채워서 진리와 성령으로 완전무장 시켜 보내어줬다고 계속해서 금식기도를 했으며,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기도해서 얻어진 영력을 두 사람에게 가득 채워 영적으로 완전무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합심하며 부름 받은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인도하심대로 선교사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근간에 선교라는 이름하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지만 현지에서 선교실적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선교사가 아니었고 파송한 교회에서도 우리교회도 선교한다는 교회적 명분만으로 내세운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입장에서 재정대책도 중요하지만 인재선별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선교사는 투철한 사명감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갖춰진 은사와 영력이 필요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할 하지만 그들이 선교하는 실상은 전혀 아니라고 볼 때 아무리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준다 해도 그곳에서는 선교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선교사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시면서 말씀으로 더불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온갖 감동과 능력, 확신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다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등에 업고 여러 사람들을 속여 먹고 살아왔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있는 자로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서기오 바울을 등에 업고 살아왔던 박수는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면 자신의 신세는 끝장나는 것과 같아서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지 못하도록 훼방함으로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박수에게 “모든 꾀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행13:10-11)”했습니다.

이것은 악령과 성령의 대결이며 선교를 하면서 겪게 되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을 지배하는 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당 박수는 바울의 말이 끝나자마자 눈이 멀었습니다.

이로써 바보라는 지역에 복음화의 기쁨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그것을 지켜본 총독은 그동안 무당 박수의 신을 믿고 살아왔는데, 마음을 돌려 주님의 말씀을 기이히 여기며 주님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경쟁의식이 있어야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의 입시경쟁, 기업간의 경쟁, 생존경쟁은 자신이 살기 위해 상대방은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까지 미치도록 극악무도해져가고 있습니

다. 이러한 경쟁의 목적은 이기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승리는 다릅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이기는 믿음은 요한복음 16:28-33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니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삽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신 후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형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과 예수님이 잡혀 가시게 되면 제자들은 다 각각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끌려 다니며 매를 맞고 수모를 겪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힘겹이 묶여 죽임 당하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이기기 위하여 거쳐야 할 싸움의 과정이었음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한꺼번에 구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죽음은 수천, 수만의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 딸들을 해산하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 같이 높아지고, 지는 것 같으나 이기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훗날 영광의 주인공으로 되어 지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에,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표와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339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신정호 목사  
380면 / 15,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호남신대학교, 정호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한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년도 회장, 총회 간-농어촌 부장,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교보 논설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대학교 객원교수, 한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한글인터넷주소 쿨란, 쿨란출판사 홈페이지 www.cool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이화장길 6 ☎ 02-747-1004 쿨란출판사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트리히 본회퍼, 오해와 편견 (13)

# 영화 <귀멸의 칼날> 인기와 우리 국민들의 일본 문화 선호 이유

자국 문화에 대한 국수적 자긍심의 정도 차이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기독교인 수 차이 만들었다 민족주의적 사고 퍼질수록, 기독교 신앙 멀어져

◆기독교 선교와 일본 문화: 존왕양이, 부국강병, 자주적 근대화에 가로막힌 선교

일본의 가톨릭 선교는 1614년 도쿠가와 막부의 금교령으로 거의 완벽하게 좌절되고 만다. 이후 약 200년 넘게 일본 내에서는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기독교인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펼쳐진다.

그러다 미국의 매튜 페리 제독이 1853년과 1854년 각각 4척과 9척의 증기함선으로 구성된 함대를 이끌고 일본에 입항하였고, 일본은 미국의 해군력에 압박을 느껴 4년 뒤인 1858년 불평등 조약인 미일수호통상조약을 맺고 개항에 합의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집권 시기 이후 200년 넘게 지속된 해금정책이 철폐된 것이다.

개항이 이루어지자마자,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일본 내 선교활동이 시작되었다. 1859년 미국의 영국국교회 목회자 채닝 무어 윌리엄스, 그리고 미국성공회(영국국교회로부터 시작,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자리잡은 교단) 목회자 존 리킨스가 나가사키 항에 도착하여 전도 활동을 시작했고, 같은 해 장로교 선교사 제임스 커티스 헵번이 요코하마 항에 도착해서 의료 선교를 개시했다.

힘난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전도를 통해 일본 내 기독교인 수는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의 자주적 근대화 노력이 기독교 선교의 길을 가로막기 시작했다.

조슈 번과 사쓰마 번 등 일본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하던 지사(志士)들은 대규모 내전인 보신전쟁(1868-1869)을 일으킨다.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 구시대적 사고에 갇혀 실정을 거듭하던 도쿠가와 막부를 전복하고 존왕양이(尊王攘夷, 일왕을 높이고 서구 오락거를 배척) 사상을 모토로 삼는 신정부 수립했다. 이것이 일본의 천황제를 회복시킨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1868)이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조선 침략의 원흉으로 알려진 정한론자 대부분이 이 조슈 번이나 사쓰마 번 출신 지사였다. 대표적으로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를 주도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조슈 번 출신 존왕양이 지사였다.

이들은 서구의 근대 과학문명과 정치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일본화(日本化) 새로운 근대

문명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일본은 나름의 자주적 근대화에 성공하며, 불과 30여년만에 아시아 유일의 제국주의 열강으로 탈바꿈했다.

이렇듯 국제정치 감각을 가졌으면서도 국수주의적인 지도층이 자주적 근대화 및 부국강병에 성공한 까닭에, 메이지 시대의 일본문화 전반에는 서구문화를 선호하면서도 배척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팽배해졌다.

부국강병에 꼭 필요한 서구 문물은 적극 받아들였지만, 일본의 문화적 자존심과 고유의 정신문화를 건드릴 만한 서구 문화나 사상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일본인들이 거부했던 서구적 요소 가운데는 기독교 신앙도 속해 있었다.

일본인들 입장에서 기독교 신앙은 부국강병과 자주성 확립에 저해되는 요소로 여겨졌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대로 무력과 힘을 존중하던 패권적 군국주의 사회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메이지 시대는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이 되기 위해 국가적 자긍심을 최대한도로 드높이려 애쓰던 시기였다.

이런 일본인들의 눈에 견비, 헌신, 회개, 순종의 정신을 요구하던 기독교 신앙은 탐탁치 않게 여겨졌다. 또한 서구로부터 전해진 신앙에 자신들의 마음을 내맡겨야 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꼈다.

그만큼 당시의 일본은 국가적 자존심, 문화적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상태였다. 때문에 개항과 근대화 시기 일본에 열린 새로운 개신교 선교 기회는 큰 결실을 내지 못했다.

### ◆기독교 선교와 한국문화: 고난의 시기 덕에 열린 선교의 기회

유사한 시기 한국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서양인 선교사들의 기독교 선교에 반응했다.

원래 조선도 도쿠가와 막부 당시의 일본 못지않게 심하게 가톨릭 교인들을 박해했다. 18세기 후반 청나라로부터 마태오 리치의 천주주의가 조선에 유입된 후, 남인 계열 선비들(정약용, 정약전 등의 실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음) 중심으로 서학, 혹은 천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톨릭 신앙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801년 신유박해를 시작으로 19세기 내내 개항 전까지 조선 천주교회는 끊임없는 박해에 시달려야 했다.



2021년 2월 한국 극장가에서 흥행한 영화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특히 1866년의 병인박해 당시에는 프랑스인 가톨릭 사제 9명이 조선 정부의 프랑스 귀환 권고를 거부하고 조선 천주교인들과 같이 사형을 당했고, 이 일이 원인이 되어 병인양요가 발발하기도 했다. 사실상 한국도 일본만큼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다.

서구 문물과 사상, 종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러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입장, 국수주의적 자긍심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서구 열강들에 의해 청나라와 조선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일본과 달리 조선은 19세기 내내 국력을 잃어먹던 세도정치와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주적 근대화를 제대로 시도해보지 못한 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급격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 시기 일본의 침탈을 견제하려 미국과의 관계 구축에 힘쓰던 조선 조정의 의해 미국인 선교사들의 전도활동이 허용되었고,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국내 선교가 본격화되었다.

그 후 국운이 급격히 기울면서, 그리고 소중화(小中華)로서의 문화적 자부심이 무너지면서 조선 민중은 점차 서구로부터 전파된 기독교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자국의 정치와 문화가 자신들의 삶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체감하면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려는 이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현재 일본은 전체 인구의 1%만이 기독교인이다. 그것도 천주교와 개신교를 모두 합쳐서 그러하다. 반면 한국은 천주교와 개신교 인구를 모

두 합쳐 1,300만명, 비율로 따지면 약 25%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인 비율에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양국 개신교 선교 역사를 되돌아볼 때, 자국 문화에 대한 국수적 자긍심의 정도를 이러한 차이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는 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19세기 중후반까지 가톨릭과 선교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일본은 스스로의 부강함과 문화적 역량에 심취하면서 서구로부터 전해진 기독교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반면, 한국은 국가의 쇠락과 자국 문화에 대한 환멸이 심해지면서 기독교의 복음에 귀 기울였다. 이런 태도 차이가 양국 선교 결과의 차이를 불러온 것이다.

한국 기독교인 입장으로 볼 때, 한일 외교분쟁 와중에도 <귀멸의 칼날>과 같은 왜색 애니메이션이 극장가에서 상당한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보면, 다소간 갑갑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반일감정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복음과 문화에 대해 수백 년간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던 일본 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암묵적인 호응과 선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인들은 외교분쟁 직전까지 일본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일본여행과 일본 취업에 열심을 내던 전력이 있다.

일본과의 비생산적인 외교 분쟁과 그로인한 민간 차원의 교류 및 협력이 가로막히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지만, 태생적으로 반기독교적 성향을 가진 오늘날 일본 문화에 한국인들의 정신이 잠식되어 가는 것 역시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본회퍼는 독일의 극단적 국수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순혈주의인 나치즘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지탄했다. 그는 20세기 초 독일 민족 전반에 보이던 이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국가주의 사고가 인간 죄성이 극단적으로 현실화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인간의 사고 바깥에서 보여지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계시행위를 묵살하려 하는 인간의 폐쇄적인 속성, 루터의 표현을 빌어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은 자기 바깥의 것, 자기와 다른 것, 타자성에 대한 맹목적 거부감과 지배욕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극단적 사례가 바로 나치즘이라는 것이다.

이 나치즘 못지않게 국수적이고 폐쇄적이며 자민족중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일본식 군국주의였고, 이러한 사고는 오늘날 일본의 정신문화 및 대중문화 전반에 여전하게 자리잡고 있다.

일본에서 제작된 대부분의 문화 콘텐츠는 때로 반전(反戰)의 정신과 휴머니즘을 담아내고 있지만, 그런 경우조차 일본적인 것에 대한 국수적 자긍심을 질게 드러낸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오늘날 한국 정계 및 문화계 내부에 팽배한 민족주의적 태도와 대단히 유사하다. 이런 사고방식이 사회 전반에 편만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성이 있다.

한국 민족 역시 원래는 기독교 복음에 배타적이고 신앙인들을 박해하는 데 열심을 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런 위험성은 더욱 실감나게 다가온다.

한국인들은 20세기 들어와 국가의 쇠락과 멸망, 그리고 한국전쟁 등으로 점철된 극한 고난의 시기를 거치면서 잠시나마 외부로부터 전해진 기독교 신앙과 복음에 열성적으로 자기를 개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전 어느 시기보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대중문화 부문에서 나름 세계적 인지도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현재, 한국 사회 전반에는 이전의 자민족 중심주의, 배타적 사고로 회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반일감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암묵적인 선호도가 높은 데는 이러한 이유도 일정 부분 작용하는 듯하다. 자국의 국력과 문화적 자긍심에 심취하는 태도에 있어, 일본은 한국의 선배격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메이지 시대 일본의 철도역 풍경을 그린 그림. 근대화 열풍에 휩싸인 당대 일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천진난만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를 다룬 휴머니즘 작품이지만, 곳곳에 일본의 근대화 역사와 정신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한가득 반영되어 있다.



영화 <귀멸의 칼날>의 포스터. 검술과 무력을 숭상하는 일본의 사회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한껏 표현한 작품이다.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그리스도인, 멘탈을 강하게 하려면

# 인생에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 3가지

능력의 주체, 사람 아닌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신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멘탈의 연금술  
보도 새퍼 | 박성원 역  
토네이도 | 272쪽

“세상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다. 유일한 전략은 당신이 세상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다!”  
1천만 부 판매  
『돈』의 작가  
보도 새퍼,  
10년 만의 신작

“패자들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드는 동안 승자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든다!”

2021년 최고의 기대작, 국내 단독 선(先) 출간!

“원하는 것을 못 할 이유는 없다.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스물여섯 살 파산자를 서른 살 백만장자로 바꾼 전 세계 부자들의 멘탈 코치 보도 새퍼의 성공 비밀 61가지

코로나19 이후에 생긴 신조어 가운데 ‘코로나 블루(Corona blue)’가 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말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말한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실외 활동이 힘들어지면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가정 불화에 따른 극단적 선택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동일 상황이지만 ‘코로나 블루’도 겪지 않고 힘들지만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멘탈(mental)’에 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어려움을 잘 이겨낸다.

하지만 멘탈이 약한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 이렇게 ‘멘탈붕괴’가 남들보다 더 일으키기 쉬운 인물을 보고 ‘두부멘탈’ 혹은 ‘유리멘탈’이라고 부른다. 두부나 유리는 모두가 부서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약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그렇게 먹는다.

보도 새퍼의 《멘탈의 연금술》은 어떻게 하면 멘탈을 강하게 해서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는지를 이야기 해주고 있다.

목표와 꿈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자는 단호하게 답한다. “스물여섯 살 신용 파산자였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성공으로 이끌어준 것은 바위처럼 단단하면 서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해질 줄 아는 멘탈을 갖게 된 덕분이었다.”

저자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멘탈혁명’에 있다고 말한다. “진정한 성공이란 그 무엇에도 가로막히거나 저지당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문제, 갈등, 시련, 두려움, 장애물이 해결되거나 없어진 상태가 아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개의 치 않는, 막힘이 없는 상태에 놓일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이 같은 상태에 놓일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멘탈혁명’이다.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쓰레기들을 황금으로 바꿔낼 줄 아는 멘탈 연금술만이 우리를 성공의 상태로 이끈다.”

저자는 인생에는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 셋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포기 of 유혹이다. 둘째, 두려움이다. 셋째,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이다. 이 3가지는 결정적일 때마다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황금의 재료가 되어주기도 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은 절대 만만해지지 않는다. 유일한 전략은 당신이 더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멘탈의 연금술》에서 나약함을 벗어나 멘탈이 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3가지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첫째, 버티라. 승자들은 매 순간 성공을 거둔 사람이 아니다. 매 순간 버티는 사람이다. 버티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 기회는 자신이 찾아가야 할 사람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인내심’을 테스트한다.

버티는 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다. 왜 버티야 하는지, 왜 인내해야 하는지, 왜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즉 버티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의 진가를 깊이 깨닫고 나면 목표까지 가는 가파른 경사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두려움을 다루어라. 두려움과 불안은 절대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들을 당신 삶에서 결코 분리해 낼 수 없다. 따라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은 두려움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것이다.

승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적어 아니라 친구, 조연자, 동행자로 삼은 사

람은 누구보다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간다. 두려움을 다룰 줄 알면, 두려움이 침착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연금술을 만나게 된다.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멘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는 잠시 멈춰 서서 그 눈덩이를 잘게 쪼개야 한다. 쪼개면 쪼갤수록 알게 된다. 눈덩이 속에는 작은 눈송이 말고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내가 키운 두려움뿐이라는 것을.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다. 미래가 너무 걱정되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해낼지, 모든 일이 잘 풀릴지 불안하다면 현재에 감사하라.

셋째, 문제를 해결하라.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알고 있다. 크고 작은 난관, 고통, 시련의 뒤에는 늘 금광이 존재한다는 것을, 평범한 사람들의 불룩 나타난 문제만을 응시할 때 그들은 문제 뒤의 금광을 바라본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답은 간명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매개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발전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살다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의문일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질문 하나를 떠올리면 된다. 지금 나에게 새로운 어려움이 들이닥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슬럼프나 정체에 빠진 것이 아니다.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발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멘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이 모세를 뒤를 잇는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 멘탈이 붕괴됐다.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행 하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모세에 비해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땅을 정복할 자신이 없다.

이런 여호수아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수 1:5).”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을 것이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멘탈을 강하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픽사베이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 헤어 컬러 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 컬러 전문점

헤어 컬러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sup>up</sup>

매직 스테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과 같습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u stylist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함께 대응합시다!

큰 변화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제 COVID의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고 있는 이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COVID 확산을 늦추겠다는 우리의 결심입니다. 잊지 않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6피트 거리를 유지하며, 차례가 되었을 때 백신을 접종받는다면 바이러스를 함께 물리칠 수 있습니다.

[cdc.gov/coronavirus](https://www.cdc.gov/coronavirus)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